

전능자도 들지 못하는 바위는 만들어졌을까?

-문학적 상상력을 중심으로-

황의찬 (전주온고을침례교회 담임목사, 신학박사 Th.D)

논문초록

‘우주를 창조한 전능(全能)한 신은 전적으로 선하다(전선 全善)’는 플라톤의 선언 이후, 신의 속성은 전능, 전선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신이 창조한 세상에는 악과 고통이 있다.(惡苦) 전능 전선의 신은 왜 세상에 횡행하는 악고를 제거하지 않는가 하는 물음은 플라톤 이전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구약성서의 율기가 그렇다. 전능 전선의 신이 악고를 제거하지 않음에도 신이 옳다는 주장이 신정론(神正論 theodicy)¹⁾이다. 그러나 신이 전적으로 선하다면 피조 세계에 어찌 악이 있느냐는 반문은 타당하다. 이 난제는 신의 전능, 전선 그리고 악고라는 세 가지 변수를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트릴레마(trilemma)²⁾이다. 신이 전선의 존재라면 악고를 제거해야 마땅하고 신은 전능하기 때문에 능히 악고를 제거할 수 있다. 그럼에도 신이 악고를 묵과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전능 전선 악고의 개념에 일부 수정을 가하거나 악고는 신과 무관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유신론을 바탕으로 하는 진영의 이런 주장에 수긍하지 못하는 무신론 진영의 철학자들은 전능자를 희화화하기 위하여 “전능자가 있다면 전능자는 자기도 들지 못하는 바위를 만들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 질문은 전능자 담론의 정곡을 겨냥한다. 신의 존재 여부를 논하기 앞서서 이 질문의 가치는 충분하다. 인간의 이성능 능히 전능자도 들지 못하는 바위라는 개념을 그려낼 수 있다. 다음으로 전능자가 있다면 전능자는 이 바위를 만들었어야 한다. 이 바위를 기피 함으로써 자신이 전능자로 있고자 한다면 비겁하다. 그러나 전능자는 전능하므로 이 바위를 만들고도 자신의 전능성에 손상을 입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전능이다. 전능자를 하나님으로 예배한다면 이러한 믿음은 기본이라 할 것이다. 이제 또 하나의 트릴레마가 우리 앞에 던져졌다. ‘전능자도 들지 못하는 바위’는 언어의 유희가 아니라 분명한 개념이고, 전능자는 떳떳하게 그 바위를 만들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전능자는 자신의 전능성에 훼손을 입지 않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능자가 들지 못하는 바위가 무엇인지를 탐색해서 발견해내면 된다. 사물은 물론 가능한 모든 개념을 포함한 피조물 중에서 신의 전능성이 무효가 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전능자도 들지 못하는 바위이다. 이렇게 좁혀놓고 바라보니 한 가지가 보인다. 사랑에는 ‘사랑하다’와 ‘사랑받다’의 두 측면이 있다. ‘사랑하다’는 누구나 결심하면 가능하다. 그러나 ‘사랑받다.’는 사랑 받고 싶은 주체가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변수다. 상대방부터 사랑받겠다고 억압한 다거나 조작한다면 그로 인한 상대방의 나를 향한 반응은 조건반사가 되고 만다. 전능자도 마찬가지다. 피조물 인간으로부터 사랑받겠다고 자신의 속성 중 하나인 전능을 직접 사용한다면 그로 인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억압에 의한 복종이나 맹종이다. ‘사랑받기’가 전능자도 들지 못하는 바위다. 창조주인 전능자의 창조는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한 프로젝트’다. ‘사랑하기’는 사람보다 전능자가 훨씬 우월하게 한다.

1) 고트프리트 빌헬름 라이프니츠 (Gottfried Wilhelm Leibniz)의 저서 ‘신정론 Theodizee’(원제: Essais de théodicée (1710))에서 이 용어가 비롯했다.

2) 트릴레마(trilemma)- 세가지 옵션 중 각각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불리한 어려운 선택을 말한다.

전능자(全能者)의 권능(權能)은 신(神)에게나 인간에게나 자신의 능력이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영역이다. 전능자가 '사랑받기'라는 자신도 들지 못하는 바위를 만들었다고 해서 전능자의 전능자 됨에 전혀 손상을 입지 않았다. 단지 '사랑받기 프로젝트'에는 이를 위한 불가피한 현상으로 '악고'가 뒤따른다. 신이 악고를 제거하는 순간 천지창조 프로젝트인 '사랑받기'는 무산되고 만다. 악고는 이 프로젝트를 위한 제거할 수 없는 뇌관이다.

주제어 : 붕어빵, 전능자, 신정론, 트릴레마, 전능자도 들지 못하는 바위, 사랑하고 사랑받기 프로젝트.

순 서	
1.	들어가는 글
2.	유신론과 무신론
3.	전능자도 들지 못하는 바위
4.	사랑하고 사랑받기 프로젝트
5.	붕어빵
6.	악과 고통
7.	귀류법(배리법)
8.	신의 은닉
9.	나가는 글

1. 들어가는 글

인류의 역사에는 불가사의가 있다. 각 개인의 인생 여정에도 불가사의가 있다. 원인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으며, 용납하기 어려운 문제에 누구나 직면한다. 이러한 실존에서 '내 삶이 왜 이럴까' 하는 그 지점에서 사람들은 초월자를 소환한다. 이 현상은 어쩌면 창조주의 의도적 설정이다. 신의 존재 증명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하도록 신이 의도 했을 수 있다. 아무도 신을 본 자가 없지만 신의 존재 논란이 인류 역사와 궤를 같이 하고 있음을 봐서 그렇다. 사람들은 왜 나에게만 이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지점에서 그 사건을 악으로 단정한다. 사건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관련성이 매우 희박할뿐더러, 그 사건으로 인하여 힘없는 여성과 노약자와 어린아이가 희생당하기 때문에 악으로 간주하게 된다. 창조자인 신의 속성은 전능(全能), 전선(全善)인데 왜 인과 관계 없이 약자가 희생당하는 악이 세상에서 횡행하는지 인류는 의문을 품어왔다. 그럼에도 기독교는 전능자 하나님을 의롭다 하며 경배하는데, 의식 저 밑바탕에 풀리지 않는 의문이 따리를 틀고 있다.

2. 유신론과 무신론

우주의 생성에 대한 견해에서 유신론과 무신론이 대립한다. 우주를 보면서 지은이가 있다고 주장하면 유신론자가 되고, 우주는 저절로 생성되었거나 어떻게 발생했는지 알 수 없다는 불가지론 입장에 서게 되면 무신론자가 된다. 성경을 경전으로 하는 기독교는 신이 있다는 유신론을 대표한다. 성경의 하나님은 전능자이며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다고 말한다. 그럼

예36 피조계의 한 문맥에 행해진다. (299) 존재 때문에 전능 전선의 하나님이 자기의 존재에 대하여 사람으로 부터 의심을 산다. 이로 인한 유신론과 무신론의 대립은 인간의 의식적 세계는 물론 잠재의식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기독교가 익명의 크리스찬이라고 까지 추앙하는 플라톤은 일찍이 '신은 선하다'고 선포했다. 선한 신이 자기의 전능함으로써 우주를 창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왜 세상에 악이 있느냐는 의문은 그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분명히 플라톤 이전에 쓰여진 구약의 율기가 이 주제를 다루고 있다. 물론 대부분의 오랜 종교들이 이와 비슷한 주제를 놓고 설왕설래 해 왔다.

오래전부터 창조의 신에 대하여 그의 전능(全能)함과 그의 선함(全善)에 대하여 세상에 실재하는 악과 고통(惡苦)의 세 변수는 좀처럼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였다. 다름 아닌 트릴레마(trilemma)다. 그럼에도 성경의 하나님은 전능하고 선한 사랑의 하나님으로 예배를 받아왔다. 하나님이 지은 세계에 악이 있음에도 하나님이 옳다고 기독교는 주장한다. 이 주장을 잘 정리한 학자가 라이프니츠(Gottfried Wilhelm Leibniz)다. 1710년 라이프니츠는 '신정론'이라는 저서를 발표했는데, 신정론(神正論 theodicy)이란 제목은 말 그대로 신은 옳다는 뜻이다.

신이 옳다고 주장하려면 신의 전능(全能) 전선(全善) 악고(惡苦)라는 세 가지 변수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설명해야 한다. 그런데 이 난제는 언뜻 풀이가 되지 않는다. 신이 선하다면 피조계에 악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악고가 있는데 선한 신이 왜 악고를 묵과하는지 의문이 생긴다. 더욱이 신은 전능하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데 왜 악고를 제거하지 않는지 설명하기 쉽지 않다. 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다각도로 해결책을 찾아 나섰다.

힌두교의 베단타 철학, 크리스천 사이언스, 스토아주의 등은 악의 존재를 부정함으로써 해결하려 했다. 이들은 악을 실재가 아닌 허상이라고 입증을 시도한다. 이를 이어받아 어거스틴은 '악이란 선의 결핍'이라고 했다. 이들의 주장에는 빛은 실재(實在)이고 어둠은 실재가 아닌 하나의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사람들은 빛을 내는 물질을 만들어 빛을 발하게 할 수가 있으므로 빛은 실재이지만, 어둠은 빛처럼 만들어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데 착안했다. 어둠은 빛을 차단함으로써만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신의 창조와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로 이 어둠이 악고(惡苦)와 유사하다고 한다. 악은 선의 결핍으로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신의 피조물이 아니라는 데 까지 나아간다. 그러나 어둠도 사람의 이성으로 감지할 수 있는 사물 혹은 개념이다. 그렇기에 어둠을 신의 피조물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더욱이 신이 어둠을 창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어둠의 생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없게 된다. 빛의 결핍으로 인한 현상을 신이 몰랐을 리 없다. 어둠 역시 신의 피조물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합당하다.

다음으로 신정론자들은 신의 전능, 전선에 대하여 새로운 설명으로 트릴레마를 극복하고자 했다. 미국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신의 전능을 부정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했다. 신은 악에 대해서는 전능하지 않다고 보았다. 신정론이라는 용어를 맨 먼저 사용한 라이프니츠도 이와 비슷하게 접근했다. 그는 신은 논리적으로 가능한 것에 제한받기 때문에 악고의 존재와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칸트, 리쾨르를 비롯한 수많은 신학 및 철학자들이 트릴레마를 풀고자 했다.

트릴레마를 해결하고자 악을 부정한 입장도 그렇고, 신의 전능성에 대하여 새롭게 설명을 시도한 입장도 결국은 신의 전능성을 훼손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들이 아무리 짜임새 있게 논리를 세워 정연하게 설명하더라도 신의 속성을 의심했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다. 기독교는 세 가지 명제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아야 한다. 더욱이 이러한 전능 전선 악고에 대한 수정이론들은 무신론자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다.

3. 전능자도 들지 못하는 바위

신은 전선 전능의 속성을 가진다. 그러나 악고로 인해서 전선 전능 모두 의심을 산다. 악고의 현실을

베르나르디니의 피조물론이 켈러(Keller, 1990, 2주) 있느냐고 한다. 또 신이 전능하다면 어찌 악고를 방관하느냐고 한다. 특히 신의 전능에 대하여 무신론 철학자들은 많은 질문을 만들어냈다. 이를테면, ‘전능자가 있다면 그는 1과 2사이에서 자연수를 찾아낼 수 있느냐’를 비롯하여 ‘창기를 처녀로 만들 수 있느냐’는 다소 난잡한 질문을 하는가 하면, ‘네모난 동그라미를 만들 수 있느냐’는 기하학적 질문을 만들어서 전능자에 대한 희화화를 시도한다.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하나라도 ‘아니오’로 대답한다면 전능자의 전능성은 훼손을 입게 된다.

무신론 철학자들의 날카로운 질문 중에 “전능자가 있다면 전능자는 자기도 들어 올리지 못하는 바위를 만들 수 있느냐”는 것이 있다. 위에 열거한 질문들과는 다소 차원을 달리한다. 위의 질문들에 대해서는 ‘언어의 유희’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이 질문에는 선불리 응수하기가 난처하다. 왜냐하면 전능자도 들지 못하는 바위 개념은 궤변이라 할 수 없는 명징한 개념이다. ‘전능자도 들지 못하는 바위’란 상상 불가한 개념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100 킬로그램까지 달아볼 수 있는 저울 위에 그 저울이 고장 나더라도 200, 300키로의 물건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들은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술하게 저지르면서 인생을 살아가기도 한다.

전능자도 들지 못하는 바위를 전능자는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전능자다. 그런데 전능자가 그 바위를 만드는 순간 전능자는 전능자가 아니다. 들지 못하는 바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독교 일각에서는 전능자는 자신이 들지 못하는 바위를 만들었다더라도 이내 그 바위를 들 수 있게 된다는 다소 억지스러운 답을 내기도 했다. 이렇게 되면 전능자는 끊임없이 자기가 들지 못하는 바위를 만들고, 만들 때마다 그 바위를 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의미 없는 순환의 고리에 빠져들게 된다.

전능자가 진정한 전능자라면, 자신의 피조물 중에서 자유의지와 이성을 지닌 인간들로부터 이러한 의심을 받게 되리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한다. 전능의 개념 속에는 당연히 전지(全知)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전능자는 이 문제도 이미 해결했어야 한다. 들지 못하는 바위를 끝없이 만들어내면서 그때마다 새로운 힘을 늘려가는 순환의 고리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신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피조물 인간이 품게 될 합리적 의심도 모두 알고 있다고 전제함이 옳다. 신은 그러한 합리적 의심에 답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자신이 들지 못하는 바위 하나는 만들었어야 한다. 단지 신은 그 바위로 인해 무능력자로 전락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바위로 말미암아 피조물 인간으로부터 진정한 전능자로 예배를 받을 수도 있을 거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해 볼 수 있다.

여기서 새로운 트릴레마 하나가 더 생겨났다. 첫째 전능자가 들지 못하는 바위는 분명히 존재하며, 둘째 전능자는 그 바위를 만들었다. 셋째 전능자는 그 바위를 만듦으로 인해서 비로소 진정한 전능자가 되었다. 이 세 가지 변수를 해결해야 한다. 만일 이 트릴레마를 해결한다면 신정론의 트릴레마까지 동시에 해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 바위를 찾아 보자.

4. 사랑하고 사랑받기 프로젝트

전능 전선의 신은 우주를 창조했다. 신의 창조 목적은 익히 알려진 대로 ‘사랑’이다. 성경의 핵심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전능자 하나님이 자기도 들지 못하는 바위를 만들었다면 바로 이 핵심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주변에서 찾아서는 의미가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다(요일 4:8).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기까지 세상을 사랑했다(요 3:16).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사랑’이다. 많은 사람이 대체적으로 여기까지 이해하지만, 전능자도 들지 못하는 바위를 찾아내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기로 한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요 4:23)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했는데 이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찾는다는 뜻이다. 예수는 대 계명으로서 하나님 사랑을 첫째로 꼽았다(마 22:37).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보다 극명하게 드러난다. 하나님은 사랑할 뿐 아니라 사랑받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하고,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해서, 특히 사람들

3) 황의찬, 『붕어빵』, (서울: 도서출판 밀알서원, 2017). 발표자는 이 발표 논문을 주제로 「붕어빵」을 출간했다.

여기서 사랑을 정리해보자. 사랑에는 ‘사랑하기’ 그리고 ‘사랑받기’가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분명히 사랑에는 두 측면이 있다. 사랑하기, 사랑받기다. 이러한 신의 섭리와 경륜을 헤아려보고자 할 때 우리는 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인간의 모습을 통하여 유추할 수 있다. 전능자의 형상을 닮은 사람도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간절히 원한다. 신과 피조물 인간의 사랑의 행태를 짚어보면서 사랑하기와 사랑받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를 보기로 한다.

사랑하기는 자기의 결단으로 할 수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만큼 사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기에는 전능자가 가장 탁월하게 사랑을 할 수 있다. 사랑하고 싶어도 능력이 미치지 않으면 못한다. 사랑하기에 있어서 전능자를 능가할 수 있는 이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다. 그렇다면 사랑받기는 어떤가?

어떤 대상으로부터 사랑받기 원한다면 그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자. A는 B를 열렬히 사랑할 뿐 아니라 B로부터의 사랑도 받고 싶다. A가 B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무엇이 있는지를 보자. A는 B의 사랑을 받아보기 위해서 먼저 B를 더 열심히 사랑하고 그에게 헌신하고 배려하고 온 마음을 다 쏟을 수 있다. 그러나 B가 A를 사랑해 주는 것은 이와는 별개다. B는 A를 사랑해 주지 않고 자신에게 관심조차 주지 않는 C를 사랑할 수도 있다. A는 C를 사랑하는 B의 마음을 어떻게 되돌려, 자기를 사랑하도록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온 정성과 힘을 쏟았지만 B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다. 그렇다고 강제할 수도 없다. 사랑받기란 바로 이런 것이다. 만일 A가 B의 사랑을 받고자 강제력을 행사해서 그의 사랑을 얻었다면 이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강압에 의한 복종일 뿐이다. 만일 B가 자신에게 더 많은 액수의 돈을 주는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하여 A가 엄청난 재력으로 B의 환심을 샀다면 그 역시 사랑이 아니다. 조건반사일 뿐이다. 사랑받기에는 A의 능력과 정성과 희생은 물론 사랑까지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사랑받기는 전적으로 B의 마음에 달려있다.

전능자의 사랑받기에서도 동일하다. 전능자가 어떤 대상으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할지라도 전능자의 전능이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 마치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으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에게 사랑을 주고 안 주고는 전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음과 같다. 만일 하나님이 자기의 전능의 속성을 사용하여 어떤 상대가 자기를 사랑하도록 함으로써 그의 사랑을 얻어냈다면, 그것은 조작 혹은 강요에 의한 조건반사가 되고 만다. 사랑이 아니다. 사랑받기에서 전능자의 전능은 아무런 효험이 없다.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다.

전능자의 천지창조 즉, 사랑하고 사랑받기 프로젝트에서 ‘사랑받기’는 전능자 자신도 들지 못하는 바위다. 전능자의 ‘사랑받기’ 즉, 피조물로부터 사랑받기는 전능자가 만든 ‘자기도 들지 못하는 바위’다. 전능자가 이 바위를 만들었는데, 전능자가 무능력자로 전락했는가?

5. 붕어빵³⁾

전능 전선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이 ‘사랑하고 사랑받기’이며 ‘사랑받기’는 전능자도 들지 못하는 바위라 했다. 피조물 인간은 실존에서 사랑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희구한다. 모든 문제 해결의 만능열쇠가 사랑임을 배워가면서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사랑으로 해결되는 세상을 비난하지 않으면서 사랑하기에 인간됨을 다하면서 세상을 산다.

하나님은 피조물 중에서 자기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3) 황의찬, 『붕어빵』, (서울: 도서출판 밀알서원, 2017). 발표자는 이 발표 논문을 주제로 「붕어빵」을 출간했다. 붕어빵은 작중 화자인 ‘나’가 겨울 한 철 붕어빵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젊은 엘리트 부부의 포장마차 안에서 수시로 만나 전능자 담론을 이어가는 내용으로서 소설의 형식을 취했다.

지었다. ~~가난은 인간을 화자로부터 평생을 이따~~ 지으면서 인간에게 자유의지와 이성과 감성을 부여했다. 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이유는 신이 인간을 자신의 교제 파트너로 삼고,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인간을 제외한 여타의 피조물은 그 자체로서 창조주인 신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신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불가능하다. 인간만이 신과 교제할 수 있으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받을 수 있다.

피조물 인간은 숙명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닮은 행동을 한다.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전능자로서 자기가 들지 못하는 바위를 만들었듯이 사람들도 도전을 즐긴다. 자기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 희열을 느낀다. 마치 들지 못하는 바위를 인간힘을 다해 들어 올리듯이 말이다. 하나님의 창조 자체가 들어 올리지 못할 바위를 만든 것이듯 사람도 들어 올리지 못할 바위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자 한다.

인간 삶의 행태 안에 어떤 것이 스스로 들지 못하는 바위인가 하니, 결혼이 그렇다. 결혼은 배우자를 맞아들이는 일인데 배우자를 평생 사랑하겠다는 다짐부터 무모한 시도이다. 그리고 배우자로부터 사랑을 받겠다는 꿈은 더욱 무모하다. 혼기에 이르렀다고, 또 눈에 콩깍지가 끼여 죽고 못사는 사람이라고 결혼 하지만 이는 자신이 들지 못하는 바위를 하나 만드는 일이다.

다음으로 자녀를 출산하는 일이다. 자녀를 낳아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로부터 사랑받겠다는 희망으로 출산하지만 세상에서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다. 이기지 못할 자녀를 낳는 일이 곧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바위를 만드는 일이다. 그래서 창조주의 천지창조와 사람들의 결혼 그리고 출산은 매우 흡사한 유비 사건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창조주 신과 피조물 인간은 공동운명체이다. 신이나 인간이나 상대에게 가이 없는 사랑을 쏟아붓고 나서, 삽작문 열어놓고 잠을 설치면서 집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하염없이 기다린다. 그러면서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한 것을 후회는 할지언정 사랑의 끈을 결코 놓지않는다.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후회는 하였지만 사랑을 멈추지 아니함과 여일하다.

인간이 전능자 신을 향하여 “당신은 무모하게 자신이 들지 못하는 바위를 만든 어리석은 신”이라고 힐난 할 수 있는 기회는 이미 지나가 버렸다. 인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전능자라도 되는 양 사랑을 쏟아붓고 나서 기약 없는 ‘사랑받기’에 넋을 잃고 기다리는 자화상을 그려냈다. 자녀를 출산한 이후 자녀가 철이 들어 “우리 엄마 아빠도 못 하는 것이 있고, 인격적으로도 부족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기 까지 부모는 마치 하나님처럼 자식에게 전지전능을 행사한다. 들지 못하는 바위를 탓하고자 했으나 인간은 자신도 모르는 중에 신의 모습을 하고 있다. 전능자가 자기도 들지 못하는 바위를 만들었다고 무능자가 되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인생의 섭리가 그러함을 깨닫고 신에게 예배하면서 그로부터 음성을 들어야 할 처지에 인간은 놓여있다.

인간은 스스로가 이렇게 되리란 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의 자리에 서 있지만, 전능 전선의 신은 미리 알고 천지창조를 결단했다. 자신의 피조물 인간 중 대다수가 자기를 외면할 줄 알면서도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신은 나중의 범죄를 미리 용서하고 천지를 창조했다. 이것이 신의 전지전능이다. 그러나 알고보면 인간도 나중의 범죄를 미리 용서한다. 배우자가 평생에 걸쳐 자신을 힘들게 할 줄 알지만 용서가 되었기에 결혼했고, 자녀 출산도 그렇다. 자식이 평생 애물단지가 될 수 있음에도 미리 용서하고 자녀를 낳았다. 신과 인간이 놀랍도록 닮아있다.

2천 년 전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대납도 나중 범죄를 미리 용서한 사건이다. 2천 년 후에 태어나 수 없이 많은 죄를 범할 나의 죄를 그때 십자가에서 쏟은 피로 죄의 값을 대신 내고 나를 의인으로 칭하였다. 배우자가 수십 년 후에 지을 죄악과 자녀가 평생을 두고 속 썩일 줄 알지만 결혼하고 출산한 일과 놀랍게 닮아있다. 속절없이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못하고 사랑의 끈을 붙들고 있는 신의 모습이나,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살해하는 자식의 손톱을 목구멍으로 밀어 넣는 어머니의 모습⁴⁾은 진저리가 날 만큼 흡사

4) 2008년 강우석 감독 작품, 영화 ‘공공의 적’에서 주인공의 어머니가 자식에게 죽임을 당하면서 자식이 자기를 죽였다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바닥에 떨어진 자식의 손톱 쪼가리를 삼킨다.

해와 희범과 두 하얀 눈이 들은 받아서 각 부의 10.25) 사랑받고 있음은 알지 못한 채 다른 대상으로부터 사랑받기에 갈급해 하면서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간다. 사랑하고 사랑받기는 세상에서 이렇게 실현 되고 있음을 그나마 전능 전선의 신은 알고 있겠지만, 욕망에 눈이 먼 인간은 한없이 불평을 쏟아내면서 평생을 살아간다.

붕어빵이 붕어는 아니지만 붕어의 모양은 있듯이, 사람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사람에게 하나님 형상이 있다. 전능자도 들지 못하는 바위는 인간의 실존에서 참 아름답게 다가온다. 역시 전능자다. 전능자도 들지 못하는 바위는 이 하나로 족하다. 사랑받기라는 전능자가 만든 자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바위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

6. 악과 고통

사랑하고 사랑받기 프로젝트에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사랑 아닌 것’이다. 사랑 아닌 것 가운데서 사랑이 나와야 할진대 신의 창조 계획은 이미 필연적으로 사랑 아닌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사랑 아닌 것들이 모인 곳에서 사랑이 발아해야 한다. 사랑 아닌 것은 무엇인가. 사랑이 만일 높은 산꼭대기에서 빛나는 무엇이라면 사랑 아닌 것은 깊은 골짜기이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빛나고 귀한 사랑일수록 이면에는 깊은 골짜기가 있게 마련이다. 골짜기가 너무 깊다고 채워버리면 사랑은 낮아져 빛을 잃는다. 사랑 아닌 골짜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하는지 전지전능한 신은 잘 알고 있다. 깊은 골짜기는 ‘이럼에도 내가 나를 사랑하겠느냐’는 신의 음성이 씩씩이 잉잉대는 곳이다.

사랑이 빛나는 산등성이라면 사랑아닌 골짜기는 고통으로 점철되는 요람에서 무덤 사이⁵⁾의 깊디깊은 계곡이다. 전능 전선의 신은 인간의 죄악상을 차마 바라볼 수조차 없었음에도 끝까지 사랑했다. 도무지 죄에서 건져 올릴 수 없을 만큼 까마득히 깊어진 죄의 골짜기에서 죄인을 건져내었다. 이것이 전능 전선의 신이 피조물 인간을 향한 사랑이다. 인간도 그렇다. 신이 있다면 도무지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울부짖으면서도 전능 전선의 신에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욕이 매우 깊은 고난의 계곡에서 그렇게 했음을 우리는 익히 안다.

악과 고통이 너무 참혹하다 하여 신의 피조물이 아닐 것이라고 건강부회할 필요 없다. 이 세상에 존재 가능한 모든 사물은 물론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를 비롯하여 모든 현상까지 전능자의 피조물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신의 피조물 아닌 것이 있다면 그것의 창조자는 누구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전능 전선의 신 말고 또 다른 창조자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유일신 사상은 허물어진다. 참새 한 마리도 전능 전선의 신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데(마 10:29) 너무나 엄청난 악과 고통을 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인간은 실존에서 납득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고난에 직면하면 신을 소환한다. 깊은 골짜기로 굴러 떨어질 때 전능자를 향해 원망의 소리를 지른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단 말인가 하고 부르짖는다. 거기서부터 신의 존재 증명은 시작되도록 신은 창조의 설계를 했을 수 있다고 위에서 언급한 바 있다. 지금까지 신정론에서는 악고에 대하여 전능 전선의 신과 친하지 않은 개념이라고 해서 신과 연관성이 희박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신을 변증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성과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생각해내는 모든 것들까지 신은 예상하고 창조의 목록에 포함시켰다. 이것이 사랑하고 사랑받기 프로젝트이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차원에서 악고에 대한 해석을 시도한다. 악고에 대한 주제에서 가장 많이 거론하는 세 가지의 재앙이 있다. 중세기에 유럽을 휩쓴 흑사병과 리스본 대지진과 홀로코스트이다. 신이 전능하고 전선하다면 어찌 이런 재앙이 지구상에 일어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누구도 선뜻 대답하고자 나서지 못했다. 이 세 가지 재앙이 모두 악인 것은 그 재앙으로 인해 희생된 사람 중에는 갓 태어난 아기도 있고, 임

5) 독일의 작가 에리히 캐스트너는 ‘요람과 무덤 사이에는 고통이 있었다.’고 했다.

신39)도 있고 학박자와 병역인도(1911.26) 령기에 자연재해가 되었던 사람이 저질렀든 간에 그 일과 상관 없는 인명의 희생을 초래하는 사건은 모두 악이다.

이 악에 대해 신은 침묵하면서 지켜만 보고 있었다. 앞에서 사랑이 산등성이라면 사랑 아닌 것은 깊은 계곡이라 했다. 여기서 어느 정도의 대답은 나왔다고 본다. 깊은 계곡 속 고난의 현장에는 악이 창궐한다. 고난이 곧 악은 아니지만, 인간이 고난과 악을 왜 한 묶음으로 단정하는지 그 이유는 이미 설명했다.⁶⁾ 이제는 신이 왜 고난과 악에 대해서 수수방관하는지 그 원인을 밝혀볼 차례다.

신이 악을 제거하지 않는 이유로서 그동안 수많은 연구가 있었고 다양한 답이 나오기도 했다. 그 답 중에는 귀류법⁷⁾으로 접근을 시도해 본 경우도 있었다. 귀류법으로서 ‘그래서 신이 그 악을 제거했다 치자, 그랬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를 보자’는 것이다. 여기서의 그 방법을 보다 철저히 적용하여 신이 모든 악을 단계적으로 제거하면 어떤 세상이 오게 되는지를 증명함으로써 신이 옳다는 입증을 시도한다.

7. 귀류법(배리법)

악고의 문제를 두고 신을 부정하는 무신론자는 물론 신학 안에서도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재앙이 있다. 신이 선하다면 왜 이러한 재앙을 허락했느냐고 질문한다. 첫째는 14세기에 유럽을 휩쓴 흑사병이다. 이로 인해 유럽 전체 인구의 1/3가량이 죽었다. 중세 유럽 사회에 큰 변화를 초래한 인류 역사상 대표적인 재앙이다. 둘째는 리스본 대지진이다. 1755년 11월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서 진도 9의 지진이 일어나서 최소 3만, 최대 10만 명의 인명이 희생된 사건이다. 세 번째는 홀로코스트이다. 제2차 세계대전 중 히틀러에 의해서 자행된 유대인 대학살 사건이다. 1933년부터 1945년까지 13년 동안 유대인 6백만 명을 학살했다.

사람들은 신이 선하고 전능함에도 왜 이렇게 끔찍한 사건을 막아주지 않았느냐고 질문한다. 너무나 끔찍한 사건들이라서 선불리 대답에 나서기조차 망설여진다. 그러나 대답을 시도해 보자. 위에서 말한 대로 귀류법적 접근으로서, 전능 전선의 신이 이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다 치자, 그러면 신정론의 트릴레마는 해결되고 신은 옳다고 모든 이들이 인정하겠느냐고 질문해 보고 대답이 어떠할지 생각해 보자. 세 가지 끔찍한 재앙을 전능 전선의 신이 원천 봉쇄했든지, 아니면 재앙의 시작과 동시에 신이 방어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면 사람들은 신이 옳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이 세 가지의 사건만큼 크고 충격적이지는 않지만 이와 유사한 사건은 역사상 무수하다. 신이 옳으냐를 따지는 사람들은 그 사건들은 거론하면서 이래도 신이 전능하며 전선하다 할 수 있느냐고 목청을 돋울 것이다. 그에 대비하여 전지전능한 신이 새롭게 거론되는 사건도 예방했거나 혹은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제하였다 치자. 그럼에도 회의론자들이 거론할만한 재앙 사건은 부지기수다. 전쟁과 해일과 이상기후도 있다. 이러한 모든 사건마다 신이 다 예방하고 구제했다 하더라도 회의론자들은 의혹 제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중에는 개개인이 당하는 고난을 들어서 항의할 것이다. 이웃 사람은 당하지 않은 고난을 내가 당했는데 알고 보니 이웃 사람에 비해서 내가 결코 더 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신의 전능과 전선은 의심을 받을 것이다. 신은 전지전능하니 이것도 예측하여 이런 일의 발생을 차단했다 치자. 그러면 신정론은 입증이 될까?

이쯤 되면 개인 간의 능력 차이는 물론 외모에 대한 불만까지도 거론할 것이다. ‘아무개는 절세미인으로

6) 고난을 초래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자 중에는 인과 관계로서 설명이 안 되는 노인과 여성과 장애인과 어린이가 희생되기 때문이다.

7) 귀류법(歸謬法, proof by contradiction)은 증명하려는 명제의 결론이 부정이라는 것을 가정했을 때 모순되는 가정이 나온다는 것을 보여 원래의 명제가 참인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다. 배리법이라고도 한다.

36페이지 읽는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용모가 26살이 되지 않단 말인가'하면서 항의할 것이다. 나는 왜 유색인종인가, 나는 왜 키가 작은가에서부터 개인 간의 능력과 취향의 차이까지 거론하면서 신은 선하지 않으며 전능하지도 않다고 주장할 것이다. 신이 이것까지 알고 있으니 모든 이들이 똑같은 용모로 태어나게 하고 균등한 능력과 획일적인 취향을 가진 존재로 사람이 태어나게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신은 사람의 모습도 개미나 꿀벌처럼 동일한 규격품으로 해 주어야 한다. 개인 간, 부족 간, 나라 간에도 조금만 차이가 나도 신에게 항의할 것이다. 결국 신은 사람의 외모와 능력과 수명을 동일한 조건을 부여해야 한다. 그래도 남는 문제는 남성 여성의 차이이다. '나는 왜 남자로 태어나게 했는가, 이것은 불공정 하다.'는 주장에는 아무런 대책이 있을 수 없다. 모든 사람을 남자로 태어나게 할 수도 없고 모두 여자로만 태어나게 할 수도 없다.

신은 전적으로 선하다는 명제는 어쩌면 재고되어야 하는지도 모른다. 굳이 전능자 신이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창조했고 사랑은 선에 속하는 가치가 분명하니 신이 선하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선한 것과 사랑은 구별된다. 그런 면에서 '신은 전적으로 선하다' 보다는 '신은 사랑을 추구한다'는 속성으로 대체되어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8. 신의 은닉

귀류법적 접근방식으로 신정론의 트릴레마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를 설명했다. 여기서 더 살펴야 할 변수가 있다. 전능의 신이 인간의 불만을 의식해서 재앙을 큰 것으로부터 작은 것에 이르도록 하나하나 제거할 때마다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 더 있다. 재앙을 제거함으로써 신의 모습이 인간에게 노출된다는 사실이다. 신의 창조 프로젝트에서 신은 자기 모습을 숨기고 있다(사 45:15, 요 4:24 등).

창조 프로젝트에서 신은 왜 자신의 모습을 은닉할까의 문제에도 사랑이 관련되어 있다. 피조물 인간에게 자유의지와 이성을 부여하고, 그들로부터 사랑받겠다고 했는데, 신이 자기 모습을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한다면 그 신이 창조주이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한다는 사실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다.

이러하면 한국의 세월호 사건에서 기울어져 가는 배 안에서 주기도문을 외우는 여학생이 있었다. 하나님은 그 학생이 기특하다 하여 그 여학생을 구원했고, 그 모습이 모두에게 알려지고, 마스크에 의해 보도가 되었다면 한국인 중 바보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하나님에게로 달려갈 것이다. 그의 앞에 부복하고 그로부터 복을 구할 것이며 예수 믿기를 자청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신은 믿음과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지식과 정보에 따라 이해해야 되는, 인간이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존재로서 오로지 복종해야 하는 대상으로 전락한다. 결국 사랑하고 사랑받기 프로젝트는 물거품이 되고 만다.

신은 창조와 함께 숨어있으면서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기다리는 입장에 설 수밖에 없다. 신은 여기서 또 한 가지를 해야만 한다. 인간이 인지하는 신의 숫자를 복수로 설정해 두어야 한다.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전지전능의 신만을 상정하고 논리를 전개해 왔다. 만일 신이 전능 전선의 창조자 하나라면 인간은 선택의 여지없이 그 신에게 부복하고 예배해야 한다. 이것은 사랑에 어긋난다. 마치 공산주의 일당독재와 다를 것이 없다. 이런 토양에서는 사랑이 나고 자랄 수 없다. 기계적인 복종이 있을 뿐이다.

신은 부득이 자신을 닮은 다른 신의 개념을 설정해 주어야 한다. 자유의지와 이성을 가진 인간이 다양한 신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사랑을 고백하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이는 인류 역사에 종교현상으로 드러난다. 사실 전능자는 둘일 수 없다. 만일 전능자가 둘 이상이라면 전능자 간 우열의 문제가 발생하고 피조물 중에서 어느 전능자의 산물인지를 분별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전능자는 어느 전능자가 피조했는가의 문제가 대두 된다. 전지전능의 개념에는 유일신의 개념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 신이 '사랑하고 사랑받기 프로젝트'로 천지를 창조하는 순간 신은 짝퉁 신을 설정해 주어서 자신이 선택의 가능성을 지닌 여러 신 중의 하나로 자리를 차지하여야 한다. 그래야만이 숨어있을 수 있

때36천에 대한 선택의 자유가 숨어있는 것은 의미가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선택하여 믿거나 신봉하는 모든 신들조차 전능 전선의 신의 피조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은 자신의 은닉을 위하여 작두 타는 무당에게도 점괘를 알려주는 무당에게도, 일정 부분 신적인 권능을 부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고는 사랑은 씨를 내릴 수 없다.

신정론자들과 무신론자 사이에 격론이 벌어진다고 하여 신이 은근히 한쪽 편을 들어 준다거나 재앙을 방지하겠다고 나서다가는 신은 모습이 밝혀지고 만다. 그리되면 사랑하고 사랑받기의 프로젝트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다. 이 모두가 전능자가 자기가 들지 못하는 바위를 만들겠다는 창조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는 옵션들이다.

9. 나가는 글

전능자 하나님의 사랑하고 사랑받기 프로젝트가 이 세상의 환경을 결정지었다. 이 세상의 환경조건은 이 프로젝트가 수행되기에 적합하도록 조성 되었다. 인간이 전능자를 사랑하거나 배척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세상이 되어있다는 뜻이다. 전능자를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길이 더 넓어서도 안 되지만, 배척하는 길이 더 넓어도 안 된다. 공평한 가운데 전능자에 대한 태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피조되어 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했다(요 5:17). 전능자는 이 세상을 창조하고 저절로 굴러가도록 하지 않고 지금도 일한다. 전능자 하나님이 하는 일 중에는 전능자를 사랑하는 길과 배척하는 두 갈래 길에 선 사람들이 공평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일도 있다. 어떤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의 길이 갑자기 넓어지거나 좁아져서는 안 된다. 신이 악과 고통의 문제를 세상에 드러나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신을 사랑하는 자들이 갑자기 늘겠지만, 그렇게 해서 받는 사랑을 신은 바라지 않는다.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난 속에서 하늘에 샷대질을 하지 않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할 때 그 사랑이 빛난다. 그 사랑이 우뚝 선 만큼 드리운 고난의 깊이도 정비례하여 깊다. 신이 있다면 자신에게 도무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통탄하다가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정금같은 사랑이다. 신정론의 트릴레마를 헤치고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욕이 있다. 요람에서 무덤 사이에는 고통이 있을 뿐이라는 말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사랑의 길이 동등하게 열려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

이 모든 은혜를 어떻게 담아 세상에 내놓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한 끝에 ‘붕어빵’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펴냈다. 형식은 붕어빵 포장마차 안에서 전능자 담론을 전개하는 소설의 형식을 취했다. 문학의 틀이 본 고의 내용에 맞다고 여겨서다. 전능자는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 낼 터이다. 아멘!